

유럽

이탈리아, 불법 유통농약 적발

유럽작물보호협회(ECPA)는 이탈리아 경찰의 불법 유통중인 농약 120톤 적발 소식을 전하였다.

유럽 농약 암시장은 국가전역에 걸쳐 범죄 집단으로 조직화 되어 있다. 이번 이탈리아의 반(反) 불법농약의 적발은 정보제보 '핫라인'의 성공 사례이나 여전히 불법농약은 유럽전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런 불법유통은 EU지역간 무역논쟁의 소지가 있어 유럽작물보호협회는 2006년부터 범 유럽 반(反)불법제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농약은 보통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져 유럽으로 보급되지만 유통과정을 파악하기란 어렵다고 한다. 농약 암시장에서 구입한 불법 농약은 농업인이나 소비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며 이 제품들은 인간 영향에 대한 시험을 거치지도 않고 검증되지 않은 독성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중국, 농약산업 새 규정 도입

중국 산업기술정보부가 오는 9월 중국농약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리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중국 일간지 AgriGoods Herald는 전하고 있다.

이 정책에는 제조업자들의 합병과 구조조정을 장려하고, 유사 제품의 복제를 억제하며 생산과 판매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규정에는 세계시장에서 농약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회사들간의 제품 개발을 협력하며, 변화를 확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산업기술정보부는 중국 전역 20개성 지역에 걸쳐서 농약산업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의 농약산업은 생산능력 및 생산 수량, 수출물량과 국내사용량에서 평균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농약수출 장려금 인상

중국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지난 7월1일부터 많은 농약에 대해 수출 장려금을 올리거나 원상회복시켰다고 중국 일간지 Nanfang Daily지는 보도하였다. 살비제, dicofol과 chlorfenethol에 대한 수출 장려금은 9%까지 올렸고, 살충제 carbofuran에 대해서는 13%나 올렸으며, 살충제 retenone이 함유된 식물뿌리 추출물과 살충제 제제를 위해 사용되는 기타 추출물에 대하여도 15%까지 장려금을 인상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8월 carbofuran과 dicofol을 포함하여 40여개 농약 성분에 대하여 수출 장려금을 취하한바 있다.

브라질, 미달러 강세에 매출액 타격

미 달러 강세가 브라질 농약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브라질 농약산업무역협회 Sindag에 따르면, 지역통화 기준대비 2009년초 5개월 동안 매출액을 2008년초 5개월과 비교하였을 때 1.7%증가한 33억2천8백만레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기준으로 환산시 시장매출은 26% 감소한 14억7천5백만달러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7년초 5개월과 비교하였을 때는 달러기준으로는 1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별 매출액 규모는 제초제는 브라질 화폐 레알 기준으로 11.6%증가한 15억9천만레알(7억9천3백만달러)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대두, 밀과 옥수수의 후기시즌 매출이 높아졌으나, 옥수수의 주요시즌 그리고 사탕무와 면화에서는 떨어졌다고 Sindag 정보팀 Iva Amancio Sampaio씨는 전했다. 살균제도 레알기준으로 8% 증가 하였으나 살충제는 16.6% 감소하였다. 살비제는 평이했고 기타 제품들은 16.2% 증가했다. 살균제 매출을 상승시킨 작물은 면화, 콩, 감자, 토마토 및 밀이었지만, 대두 및 옥수수는 오히려 떨어졌다. 살충제는 단지 옥수수만 후기시즌에서 증가를 보였다. 이는 5월 살충제 매출이 1.8% 떨어져 전반적인 하락을 이끌었다. 달러기준으로는 지난해 대비 23% 떨어졌다.

2009년 전체 매출은 달러기준으로 15-20%까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고 Sampaio씨는 덧붙였다. 다른 브라질 농약협회, Andef에서는 레알기준으로 평이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브라질